

Life Care Partner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튼튼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함께 동행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6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수술 부위 감염예방 및 항생제 오·남용 개선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번 평가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 결과이다.

항생제 사용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주요 관심사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평가에서 해당 수술 (개두술, 견부수술, 담낭수술, 제왕절개술, 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7개 부문에서 98.7%를 충족해 1등급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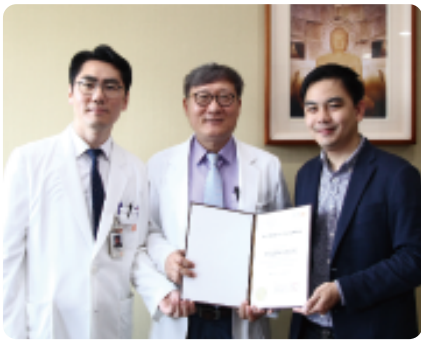
이번 결과는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해 모든 의료진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다시 한번 본원의 우수한 의료 질을 입증하게 됐다.

태국 PHRAMONGKUTKLAO 병원 의료진, 척추 최소 침습 수술 연수프로그램 이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달여간 본원에서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 태국 PHRAMONGKUTKLAO병원 정형외과 의료인 2명에 대해 연수증명서를 수여했다.

척추 최소 침습 수술의 장점은 출혈이 거의 없고 수술 시간도 1시간 전후로 짧아 수술 후 다음날부터 바로 보행이 가능하여 고령의 환자들에게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수술은 보건복지부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수술로 태국에서 온 2명의 정형외과 의료진은 2달 동안 척추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한 수술 참관 및 case study를 함께하며 본원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연수받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채석래 병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척추 최소 침습 수술의 선구자로서 해외 의료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선진 의료기술을 알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소아재활 환자를 위한 불교 의료봉사단 ‘수제 양말 인형’ 전달식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날마다좋은날 불교 의료봉사단 ‘반갑다 연우야’에서는 지난 5월 29일 소아재활 환자들을 위해 양말로 만든 ‘걱정이 인형’ 50개를 전달했다.

걱정이 인형은 불안과 걱정이 있는 아동들이 이 인형을 안고 자는 사이에 아이의 걱정을 이 인형이 대신 해 준다는 의미를 지닌 인형이다. 전달된 인형은 봉사단원들이 환아 들을 위해 정성들여 한 땀 한 땀 바느질해 만든 인형으로 인형에 쾌유를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있어 그 의미는 더 컸다.

전달식에 참석한 반갑다 연우야 황채운 단장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수제 양말인형을 만들게 되었고, 이 인형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원무팀 직무교육을 통한 환자 응대 스킬 향상 기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5월 23일 4층 중강당에서 원무팀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에서 원무팀장은 “환자 응대에 필요한 기술 향상을 위해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매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내원객의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내원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